



다시 대한민국!
새로운 국민의 나라

배포 : 2024년 4월 30일(화)

윤석열 대통령, 앙골라 대통령 공식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(4.30)

- 앙골라 대통령으로서 23년 만에 방한 -
- 무역 및 투자, 보건, 경찰, 인적교류 등 분야별 MOU 체결 -
- 조선, 에너지 등 각 분야 실질 협력 증진에 합의 -

윤석열 대통령은 오늘(4/30, 화) 주앙 로렌쑤(João Lourenço) 앙골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.

양 정상은 양국이 1992년 수교한 이래 우호 협력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왔다면 지난해 11월 정상 간 통화를 포함해 최근 각급에서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양자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.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이 2017년 취임 당시부터 한국을 주요 협력국으로 언급하면서 양국 간 협력을 적극 추진해 온 데에 사의를 표했고,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성공적인 발전 모델과 경험이 앙골라에 모범이 된다고 했습니다.

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(TIPF) 양해각서(MOU)가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한 단계 성장시킬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건설, 조선, 화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던 협력을 신재생에너지, 보건,

관세행정, 방산, 경찰 협력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가자고 했습니다.

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서명한 보건협력, 경찰협력, 외교아카데미 간 협력 MOU를 통해 양국 간 분야별 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가길 기대하면서 앙골라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개발협력 파트너십도 계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습니다.

※ 양국 정상 임석 하 서명 문서(총 4건)

-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(TIPF) 양해각서^(한)산업통상자원부 장관-^(앙)외교부 장관)
- 보건협력 양해각서^(한)보건복지부 장관-^(앙)외교부 장관)
- 국립외교원-앙골라 외교아카데미 간 협력 양해각서^(한)외교부 1차관(외교부 장관 대리)-^(앙)외교부 장관)
- 경찰협력 양해각서^(한)경찰청장-^(앙)외교부 장관)

대통령은 로렌쥬 대통령 취임 이후 앙골라 정부가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에 적극 협력해 주고 있는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으며, 양 정상은 국제사회가 안보리 대북 제재를 계속 철저히 이행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. 또한, 양 정상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.

대통령은 오는 6월 4일부터 5일까지 개최되는 한-아프리카 정상회의가 한국과 아프리카 간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구축함은 물론, 한-앙골라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고, 로렌쥬 대통령은 한국의 정상회의 개최를 환영하며 역사적인 이번 정상회의가 성공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.

정상회담에 이어 양 정상은 한-앙골라 정부 관계 부처와 기관 간 양해각서(MOU) 서명식에 임석했습니다. <끝>